



# 한국항공우주 (047810)

주가 (11월 7일)  
시가총액

61,700원  
6조 14십억원

[Analyst] 이동현 연구위원  
✉ ldh@shinhan.com

이지한 연구원  
✉ leews307@shinhan.com

## 제노코 인수 공시, 의미 있는 변화

### 항공우주 통신 기업 제노코 경영권 인수 발표

- 11/7 제노코(361390)에 대해 지분 334만주를 54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공시. 구주 204만주와 신주 130만주(3자배정 유상증자). 구주는 제노코의 유태삼 대표 보유 주식 50%(108만주, 전체 216만주, 28.8%), 2대 주주의 주식 100%(96만주, 12.8%), 현재 총 주식수는 750만주, 완료 후 880만주, 최종 지분비율은 37.95%. 현금취득, 취득예정일자는 2025.01.08
- 장 종료 전에 발표되었으며 11/7 주가는 한국항공우주 1.8% 상승, 제노코 상한가
- 취득목적은 우주 통신 탑재체 및 항공전자 사업 역량 강화. 경영권 인수 후에도 현 대표이사가 계속 경영

### 의미 있는 변화

- 11/7 제노코(361390)에 대해 지분 334만주를 54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공시
- 제노코는 위성통신, EGSE/시험정비장비, 항공전자, 방위산업 부품사업을 영위. 위성통신은 정부에서 위성표준화 목적으로 개발된 차세대중형위성 3호기까지 X-Band Transmitter(데이터 전송용 위성 부품)를 납품. 항공전자 부문에서는 FA-50, KF-21의 혼선방지기, 헬기의 인터콤(상호소통용 부품)을 납품
- 제노코의 '23년 매출액은 551억원(+9%, 이하 전년동기대비), 영업이익 12억원(-63%). 자산 663억원, 자본 348억원, 부채 314억원. 한국항공우주의 주요 사업 협력사
- 한국항공우주는 위성 및 항공전자 분야에서 부품계통의 수직 계열화, 재료비 절감, 기술 내재화 및 개발 역량 강화 등의 시너지
- 한국항공우주는 그동안 사업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M&A 전략을 표명. 그러나 그간 최대 투자는 영상분석 전문기업 메이사와 합작으로 설립한 메이사플래닛(누적 투자 78억원, 2대주주) 정도
- 한국항공우주는 한화시스템의 세트랙아이 인수(589억원, 지분 20%), LIG넥스원의 고스트로보틱스 인수(1,982억원, 지분 60%) 등의 투자에 비하면 M&A에 소극적이었음
- 이번 제노코 인수를 통해 사업 확장 의지를 보여줬다는 판단. 방산과 우주산업의 급변하는 물결 속에 향후 중장기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기대

### 한국항공우주 제노코 주식 취득결정

회사명(주요사업)	제노코(위성통신부품 제조)
취득주식수(만주)	334
취득금액(억원)	545
자기자본(억원)	1조 6,199
자기자본대비(%)	3.36
취득후 소유주식수(만주)	334
취득후 지분비율(%)	37.95
취득방법	현금취득
취득목적	우주 통신 탑재체 및 항공 전자 사업 역량 강화
취득예정일자	2025-01-08

자료: DART, 신한투자증권

### Compliance Notice

- ◆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(작성자: 이동현, 이지한)
- ◆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
- ◆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◆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,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◆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,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.